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The Social Support Network of Divorced Single Mother Familie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최새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권소영
석사과정 강유진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Ok, Sun-Wha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octoral Student : Choi, Sae-Eu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Course Student : Kwon, So-Young
Master's Course Student : Kang, Eu-gen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support network for divorced single mother families.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divorced single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school-age child. Qualitative analysis of data showed that divorced single mothers evaluated themselves based on other people's perception. There were mainly three different kinds of self-images, which were "a competent divorced woman," "a bad child to my parents," and "a socially weak person." We also found that there were two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veryday lives of single mothers: all of them suffered hardships in living as a divorced woman with children, and they also had to deal with the weakened solidarity with family of origin, relatives, and neighbors. Single mothers shared common problems yet their lifestyles and adjustment strategies were diverse. Therefore, diverse social welfare policies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single mothers are urgently needed to support and empower divorced single mothers.

▲주요어(key words) : 여성 한부모가족(female-headed single-parent family), 모자가족(single-mother family)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옥선화 (E-mail : swok5481@snu.ac.kr)

1. 서론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유기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다. 다양한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가족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한부모가족¹⁾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한부모가족 중에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²⁾.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대한 시대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는 이혼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칠출(七出)이라고 하여 명백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 있어서도 집정관이 일반적으로 이혼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여 상소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장현섭, 1995: 35). 그러나 1910년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의 사상과 문화가 급속하게 유입되었던 일제시대 초기에는 이혼이 사회문제화 될 만큼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 시기의 조이혼율을 보면 1911년에는 조이혼율이 0.41에 이르고 1911년에 1934년까지 평균 조이혼율이 0.46³⁾에 이른다(김두현, 1989: 526).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당시에도 사별이 아닌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있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1945년에 독립한 이후에는 외래문화의 유입증가와 6.25 전쟁 등의 외부적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는 많은 한부모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 및 산업화와 함께 부부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약화되고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으며(김정옥, 1993: 22), 가족법이 개정되어 이혼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뀌면서 재판 이혼이 용이하게 되었다(권귀숙, 1998: 157).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⁴⁾하는 만큼,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은 한부모 가족의 중대한 과제이다. 한 연구(김미숙·박해경·박상현·홍석균·조병은·원영희, 2000)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중에서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남편의 상실로 인해 주수입원인 소득이 1/3에서 반 정도까지 감소되거나 상실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는 취업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 1999년 저소득 재가 모자복지 대상 여성 한부모가족은 88%가 취업을 한 상태이지만, 일용직이 47.5%에 해당하는 등 대체로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 81.6%는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복지 수혜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는 한부모가족은 건강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이 종사하는 직업이 불안정한 일용직이 많고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며 직업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신체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우울감이 높거나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에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미숙의 5인, 2000).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양부모가족(兩父母家族) 생활을 하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이전에 그들이 수행해 왔던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외에 다른 한편의 부모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따른 긴장과 역할과중을 경험하게 되며, 가족생활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데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은 외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는 높은 반면 정서적 지지가 낮아서 여성 한부모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변으로부터 심리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한다(김오남·김경신, 1998)고 한다.

더욱이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한부모가족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그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지원체계로서의 사회관계망 지지 정도가 그들의 삶의 재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많지 않다. 사회관계망은 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1차 집단과 친구, 이웃과 같은 2차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가족은 개방체계로서 가족 외부의 사회관계망의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원효종, 1997). 현대사회에서 사회관계망은 부모나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친척이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척이외의 친구, 직장동료, 이웃 또는 종교집단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여성 한부모의 경우에는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지는 않다(이재립·옥선화, 2001). 그러나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사회관계망으로서의 친족관계가 약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한경혜, 1993). 또한 사별한 경우에는 이혼한 경우보다는 친척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Jayakody et al, 1993)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사회관계망 지원의 상대적인 취약성이 예측된다.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원의 개념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 사회적 지원은 그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기능적인 행위로 구별할 수 있다(Autonucci, 1990; 최은정, 2000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에 따른 기능을 분석하고자 사회관계망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이 속한 중간 또는 낮은 계층의 여성 한부모가족⁵⁾의 이혼한 어머니⁶⁾를 제보자로 선정하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전국가족복지요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 새싹가족, 1인 단독 가구와 같은 다양한 가족은 96만 7천 5백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은 6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김승권, 이태진, 김유경, 송수진, 2001: 27-28).
- 2)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수는 1985년에는 5만이었으나 2000년에는 24만 6천가구에 이른다(통계청. www.nso.go.kr.).
- 3) 이 시기(1931년) 외국의 조이혼율은 미국 1.6(1930년), 일본 0.8, 영국 0.1 등 이었다.
- 4) 이혼사유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1985년에는 3.0%였으나 2002년에는 13.6%에 이르고 있다(출처: 통계청. www.nso.go.kr.).

5)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총인구조사와 다수의 선행 계량적 연구결과를 통해서 예측한 것이다.

6) 이혼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최근의 이혼율 급증

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 실태를 통한 삶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그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삶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건강한 한부모가족을 이루기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성

1. 연구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질적 연구의 방법 중의 하나인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일부는 선행연구자료⁷⁾를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의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양적연구의 '확률적 표집'과는 성격이 다른 '준거적 선택'을 통해 제보자를 선정하는데, 여기서는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 방법(조용환, 1999)을 사용하였다.

한부모가 된 배경이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에 미치는 주요 영향이므로 한부모가 된 배경이 이혼인 동질적인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제보자는 결혼지위가 이혼상태이고 본인의 근로소득이 가족의 주 수입원이며, 자신이 학령기 자녀(초중고 재학 중)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이다.

선행연구(옥선화·성미애·허정원, 2001)에 의하면, 다른 가족형태와 비교할 때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는 경제적 부양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므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장 내의 다양한 변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접한 사회경제적 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현재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의 모자복지가정 선정기준(81만 7천원)에 속하며 단순노무직이나 단순기능직의 비공식 부문의 직업군에 속하여 월수입이 8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 3명⁸⁾과 소득수준이 보건복지부의 모자복지가정 선정기준보다 약간 높은 월수입 100만원 이상이며 직업지위가 판매, 영업직이나 서비스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중간이하 계층⁹⁾인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저소득층 여성 가정은 서울특별시 소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모자 가정의 어머니 중에서 제보자로 적합하다는 여성가장을 소개 받았다. 중간이하 계층 어머니는 이혼한 여성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소개를 받아서 1차 심층면접 대상자를 접촉한 후, 그 사람의 소개로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소개받은 한부모가족의 어머니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을 요청하였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사실과 익명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주로 제보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이 많지 않은 일요일과 퇴근 후인 6시 이후에 이루어졌고, 면접장소는 제보자의 집이나 제보자의 사무실이었다. 면접은 2001년 3월부터 5월¹⁰⁾과, 2003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면접 소요시간은 사례별로 1시간 30분에서 3시간이었다.

면접내용은 한부모가족이 된 과정과 가족 및 사회관계망과의 관계, 지원의 수혜 내용과 요구하는 바를 포함하였다¹¹⁾. 면접내용은 제보자의 양해 하에 녹음을 실시하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우선 녹음내용을 들으면서 면접내용을 숙지하였고, 전사본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석을 시작하였다. 먼저 전체 면접 자료를 반복적으로 숙독하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사회관계망의 주요 테마를 찾아내었고, 다음 단계로 각각의 전사본을 정독하면서 각 제보자의 사회관계망의 중요한 테마를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이 끝난 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테마들을 기초로 이 테마들의 일부를 포괄하는 대분류 제목을 찾는 Spradley(1980)의 분류 분석에 따른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였다.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제보자가 말하는 사회관계망 지원은 이혼에 대한 자아 지각, 친정부모와의 관계, 근접환경과의 관계,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었고, 이 테마를 토대로 분석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2. 제보자의 개인적 특징

면접에 참여한 여성 한부모는 총 7명이다. 제보자들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보다는 낮은 소득수준에 있는 대상을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칭한 것이다.

- 10)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BK핵심사업 아동가족학팀의 1차사업 2차년도(2000년 9월-2001년 8월) 여성가장 심층면접 일차
- 11)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모자녀관계는 매우 중요한 지지적 사회관계망이나(옥선화·성미애·이재림·이경희, 2002; 이소영·옥선화, 2002; 이재림·옥선화, 2001), 이 연구는 학술대회 발표 자료로 모자녀관계는 별도의 논문으로 분석, 보고하도록 학술대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모자녀관계를 제외한 사회관계망 지원만을 분석하였다.

으로 인하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예측되며,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따라서 이후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만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 연구가 심층면접을 통한 탐색적 질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서, 한부모가족이 된 다양한 배경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 분석할 수 없었던 연구의 한계도 있음을 밝힌다.

- 7) 선행연구자료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BK21 핵심사업 아동가족학팀의 1차사업 2차년도(2000년) 여성가장 심층면접 자료임.
- 8)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BK21 핵심사업 아동가족학팀의 1차사업 2차년도(2000년) 여성가장 자료
- 9) 중간이하 계층이란 보건복지부의 모자복지가정 선정기준보다 약간 높은 소득수준에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중간계층

제보자들의 연령은 면접 당시 33세에서 45세이며, 사례 5를 제외하고는 40대이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식당일, 미싱사보조, 보험설계사, 호프집, 사무보조 등이었다. 월수입은 45만원에서 250만원에 이르기까지 직종과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 제보자들은 자녀가 하나 또는 둘인 경우가 각각 3명이며, 자녀가 셋인 경우가 1명이었다. 본인의 학력은 고졸이 4명이었고, 대졸, 중졸, 초졸이 각각 1명씩이었다. 이혼 후 경과기간은 3-11년이었으며 이 중 일부(사례 3, 사례 5)는 별거기간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한부모의 지위에 있었다.

< 표 1 > 제보자의 개인적 특징

이름	연령(세)	학력	이혼 후 경과기간(년)	현재 하는 일	월수입(만원)	자녀
사례 1	45	고졸	3	식당일	45	남(고2) 여(중3) 남(초4)
사례 2	44	중졸	7	미싱사	65	여(고2) 여(중1)
사례 3	43	초졸	9*	미싱사 보조	80	여(고3) 여(고1)
사례 4	45	대졸	10	사무 보조	100	여(중1)
사례 5	33	고졸	6**	보험설계사	250	여(초1)
사례 6	42	고졸	9	호프집	150	남(중2)
사례 7	43	고졸	11	보험설계사	200	여(고3) 남(초6)

* 남편 가출로 인한 별거기간 8년 포함

** 별거기간 3년 포함

III. 여성 한부모의 사회관계망: 개인적 특성과 지원을 통한 삶의 재구성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이혼한 여성으로서의 자아 지각은 그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제보자들의 이혼한 자아상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후, 그들이 소유하고 형성한 사회관계망 지원을 파악함으로써 여성 한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지원을 통한 삶의 재구성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여성 한부모의 개인적 특성은 제보자가 보고하는 친정의 특성, 이혼과정, 경제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이혼한 나의 모습

1) 나는 당당한 이혼녀

(1) 친정의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

친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배우자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상향혼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까지 제보자가 속한 사

회적 계층이 지속적으로 중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인식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였다는 생각은 할지라도 자신의 낮아진 상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나 형제가 '잘살기' 때문에 지원을 쉽게 부탁할 수 있다고 한다.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친정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엄마가 그 경제력이, 그녀가 경제력이 있으세요. 그녀가 결혼할 때 집도 얻어주셨고, 애기 병원비를 해주셨고, 맹천 한 푼, 무일푼에 엄마한테 들어갔어요. 엄마가 방 한 칸을 주셔갖고, 애기랑...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이랑 지금... 지금도 같이 살아요. 생활비, 저 한번도 안냈거든요. (사례 5)

부모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해서 공장을 다니며 야간학교를 다니다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두 달 만에 결혼하거나(사례 1),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간호사 양성소로 보내지는 게 싫어서 가출해서 친구와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을 만나 두 달 만에 결혼한 경우(사례 2), 혹은 졸업장 받을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식모살이부터 시작해서 공장 다니던 남편을 만나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한 경우 등(사례 3)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친정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늘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고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정이 중간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원래의 자신의 지위에서 이혼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가 되었다는 추락의 경험은 하였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 또한 친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2) 이혼과정: 피해자라는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이혼의 귀책사유가 전남편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여 주위사람이 제보자를 피해자로 여기고 동조하는 입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비교적 약화된다. 따라서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이혼한 과정에 대해 친정 부모나 형제가 동감을 표시하고 불행해진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처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혼 전에 남편이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와 이혼 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이혼이 가져다주는 위기는 정서적 위기가 경제적 위기보다 크다.

이혼 당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이혼을 지지한 경우와 금전적 물질적 지원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 이혼 후 삶의 지지원이 된다.

저는 주변에서 더 이혼을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내가 보기 에) 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애기 버리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속직

히 밖에 나가서 얘기를 낚아서 살고 있고, 어떤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죽어도 이혼은 싫었거든요. (그래서)참고 살았어요 ... 한 3년을 참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시댁에서 그 여자, 애기 난 여자, 건강한 아들을 끌어 들어 드라고요 그 배신감과 부모가 그걸, 우리 엄마가 그걸 알게 되면서 서둘러서 이혼한 거죠...법적으로... (사례 5)

그 돈 가지고는 좀 둘이 살기 힘들었지. 엄마가 많이 도와줬어. 엄마가 먹는 거 먹거리 특히. 물건은 택배로 부치시는 거예요 어제도 김치... 김치두 뭐 세 가지나 보냈드라고. ... (중략)... 택배로 음식 같은 거 보내 주시고, 몇 달에 한 번씩 목돈 한번씩 주시고... (사례 4)

(3) 경제적 능력: 안정적 직업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 회복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제가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벌 수 있고, 능력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잘라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일할 자신이 있으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면... 그거만으로도 나는 살 자신 있어요 (사례 5)

난 이 일이 재미있어 갖고, 나 돈 많이 벌었어요 ... (중략)... 아빠가 교육비 그런 거 안 줬어요 내가 다 줬어요 학원비도 내가 다 줬구. 애들한테 다른 애들보다 그런 면에서 풍족하게 해주었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사는 대신. 엄마가 많이 벌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친구들 보면 내가 친구들까지 다 사주고 그런 면에서는 애들한테 많이 해주었어요 보상심리는 아닌데, 어쨌든 돈이 여유로우니까 쓰게 되고 (사례 7)

많은 경우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장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이 자존감으로 작용할 때 이들의 삶은 당당해 질 수 있다.

(4) 자조공동체에 대한 요구

경제적 안정감과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자신은 또 다른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부부 사이는 훼손되었으나 즉 자신이 새롭게 만든 가정은 해체되었으나, 자신의 부모와 연결되어있는 가족환경은 여전히 견고하게 지지적 환경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지적 환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강기정·이무영·김영희, 2002)를 찾고, 그 곳에 참여하는 활동으로까지 나아간다. 무엇보다도 같은 상황에 있는 사

람들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실패자나 낙오자, 이탈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키워줌으로써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자조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남편, 아내, 이모, 삼촌, 형제들의 역할을 보완해주고,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정보적 지원도 담당한다.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사람들의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한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회적 지원 탐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모임에 들어간 시기는 이혼 준비를 하면서. 막연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솔직히 저는 이혼하기 전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결정하기가... 그 힘든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혼이라는... 나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검색을 딱 했는데 우연하게 거기 들어가서 그니까 제가 맨 처음 제일 힘들 때, 의지가 된 곳은 거기 밖에 없었고요 ... (중략) ... 왜냐면 공감대가, 공감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얘기할 거리도 많고... 고민하는 그런 것도 똑같고, 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서로 서로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자기 힘든 얘기하면 같이 눈물 흘리고... 얘기... 왜냐면 같이 느끼는 아픔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더 친해질 수밖에 없죠 (사례 5)

이러한 지원의 활동내용은 한부모가족의 부모들에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보(정기모임)를 통하여 활동을 공유한다.

이 모임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요? 그러니까 아이 사랑이라 해 갖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아니면 뭐... 그런거죠... 정보 교환인데요 실생활에서 이러한 기능이 좀 필요하다는 거 고민 있으면 어드바이스 해준다든가 그런 거를... 그리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정모때 애들을 위해서 구연동화를 해준다든가, 울동, 보통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주고요 운동회 하고, 그런 거 많이 해요 박물관 있으면 이런 좋은 박물관 있으면 이제 어디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어디 가자, 인체 체험관 가자, 삼성 어린이 박물관 가자, 한옥마을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빠 없는 애가 아니고, 나만 엄마 없는 애가 아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나는 외톨이가 아니라, 세상에 아웃사이더가 나만 아니다. 나랑 똑같은,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거 같애... (사례 5)

이렇게 유사한 환경에 처한 한부모가족이 자조집단을 이루어서 보완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최근의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 향상의 긍정적 영향이라고 하겠다.

2) 나는 잘못된 자식

(1) 친정의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중간)

친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즉, 그 어느 누구도 소위 '잘사는' 것은 아니므로 쉽게 손을 내밀 수는 없다.

부모가 잘사는 부모 만난 사람은 다 지 복이지. 그나마도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 어쩔 때는 물론 나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면 부모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 그거 안 되는거 생각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고 머리만 아프니까... 안 되는 거 생각하면 뭐해. (사례 6)

친정이나 결혼했던 상태에서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아서 형제들도 비슷하게 살고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그럴 능력은 없다보니 오히려 서로 보는 것이 부담이 될 거라는 인식을 갖는다.

형제들 만나는데, 형제들 모임 같은데 가면 안 편해. 안 편하고 괜히 또 내 형제들은 안쓰러우니까 잘해주는 시늉을 하면, 같이 그게 부담스럽고, 올케들 있으면 또 안 편하고 (사례 6)

(2) 이혼과정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친정 부모나 형제에게 부끄러운 일로 인식되기 쉽다. 또한 결혼상태일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가족과 친족간의 도움을 이미 받기 쉬우므로, 그러한 결혼이 이혼으로 이어졌을 때에 가족 및 친족 간의 관계는 오히려 단절되기 마련이다. 사업이 망하여 친정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사례 7의 경우는 남편이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이혼소송을 신청한 경우이므로 친정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친정에서 다 보증 서주고, 안 갚으려고 이혼했는데. 그런가 보니까 친정 부모님들이 땅 파시고 갚아주시고, 하니까 이혼하게 되고 이혼하고도, 이제는 딸 다섯에 셋째인데, 우리 앞으로다... 지금은 그렇지. 단순히 이혼을 하는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 나부터, 당사자들은 물론, 자기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족들이 모두 고통을 받으니까... (중략)... 친정식구는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는데 이혼 한거니까 밋고, 돈도 나 때문에 땅을 이십억을 팔았으니까 그것도 싫고, 그런 것 땀에, 아무래도 생각 안하려고 해도... 그러구 나서 혼자 사니까 속상하니까... (사례 7)

(3) 경제적 능력

한부모가족 어머니에게 가장 절박함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다. 비록 소득이 안정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에너지가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식과 자기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다른 어떠한 곳에도 눈을 돌릴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자식 역시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한다.

자식이 무슨 의지가 돼. 속 썩이기나 하지. 의지란 것은 그야말로 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돈을 벌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릴 것이고, 자식을 책임질려면 내가 맨몸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누가, 내 자식 봐 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세상이 그렇더라고 그렇게 좀 연고가 괜찮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나 같은 경우엔 내가 딱 어떻게 되면 내 자식 봐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다, 다 서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 뭐 데리고야 있어주겠지마는 편안하게 살만한 그런 건 없고, 의지가 되는거는... 참... 그렇지만은, 돈 밖에 없을 거 같아요 (사례 6)

(4) 고립된 삶

친정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거나, 이혼한 자녀로서 불편한 관계이거나 하므로 친정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더욱 고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지금 벌어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는 걸 혼자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누구를 만나 하소연할 여유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입지는 너무나 미약하고 형식적이며, 어떠한 사회적 환경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교환을 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간다.

직장 다닌다고 해서, 잠깐 잠깐은 서로가 오래 됐으니까, 충분히 겪으니까, 알 거 다 아니까, 얘기 하는 편이고, 친구? 학교 친구한테 얘기하는 편이고... 근데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얘기해봤자 어차피 내 문제고, 얘기한다고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정도고 (사례 7)

혼자 사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돈을 때 왔으니까 달라 소리도 못하고, 엄마한테, 엄마 이젠 만나갔으면 했는데, 내가 사글세 값도 안 갓고 안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가지고 나왔어요. 맨몸으로 와가지고 고시원 같은데서 자면서 일하다가 사글세, 또 조금씩 늘려가고 그러니까 딱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 시간이 없어요. 금방 금방 시간이 가고... (사례 7)

아들(유학)보내고 나니까 외롭죠. 얼마나 보고 싶어. 그런데 그나마 남보다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좀 더 애착이 더 생기고, 내가 내 자신보다도, 내 외로움보다도, 내 자식이 일단... 보고 싶죠. 그래도 개 보내고 내가 이 일하면서, 바빠서, 일요일도 일하고 하니까, 내 자유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여유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거지, 누구를 위해 다행인건지(웃음) 모르겠어, 사실은.(사례 6)

자신을 지탱해주던, 혹은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던 모든 출력이 끊어지게 된 데에는 친정가족과의 유대가 본래 취약했거나 약화된 경우이다. 그래서 친정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가 여전히 불편한 것이다. 원래부터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친정으로부터 이혼 후 경제적 지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입지가 더욱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언니가 둘 있는데도, 아무도 시집이든 친정어른, 이혼하고 나니까는 미워만 했지, 그 전에 어떻게 살아봐라 어떻게 해봐라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 내가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내가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처신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믿고 참았으면 더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후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누구라도 말을 해줬으면, 최후의 선택은 내가 하긴 해도, 내가 몰라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는 후회를 안 하지만, 나는 안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까. (사례 7)

사실 부모 입장에서라도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면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데 잘못된 자식이 있으면 안 편할 거 아니에요 그 것도 안 편하고, 당사자인 나도, 형제들 만나는데, 형제들 모임 같은데 가면 안 편해. (사례 6)

형제들도 자주 못 만나지. 내가 안 만날려고 해. 내가 왜냐하면 식구들이 다 보이거나 때문에 불편해. 분위기가. (사례 4)

먹고 사는 거는 그 때 그 때 해결하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누구한테 도움을 못 받으니까, 많이 모아놓은 돈이 한 번에 확 없애버리면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거지. 그런 부분이 힘들죠. 그러니까, 가족이, 이혼이 안하고 있으면, 남편도 별로, 나도 별로 해서 쌓여가지고 어디로 안가고 그러는데, 혼자 별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친정에서든, 형제들이든, 그렇게 안 도와주니까. (사례 7)

3) 나는 사회적 약자

(1) 친정의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

친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취약한 상황이므로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의 유대가 이미 소원해진 상태가 많고, 따라서 이혼 후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경제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간혹 형제가 신체적 정서적 지지원이 되기도 하나 친밀도가 높은 관계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친정 사는 게 다들 자기들이 그러니까 크게는 도움 못주고, 별로 도움은 없어요 그냥. 내 지금은 기대하지도 않고, 지금은 말 이래도 '아유, 안됐다' 그냥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거로 위안을 삼죠 아직은 별로 도움을 못줘요. (사례 1).

어려운 거는 혼자서 애들을 키워야 하는데, 교육문제 같은 거, 주거문제 같은 거...그게 다 경제적인 문제인데도, 그게 인제 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옷들, 마음대로 못 해주니까, 그런가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맘대로 못 가르치니까, 음... 애들이 요구하는 거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니까, 그런 답답함... (사례 1).

나는 여동생하고는 자주 만나고, 딸 애들하고는 애들이 올라와야 보지, 내가 못 내려가지. ...그 여동생이랑은 자주 왕래하죠 개가 김치 같은 거 담아줘요 아이구, 그러나 돈은 쥐주지도 안어. 내가 절려가지고 꿰달라는 소리도 안 해. 속 얘기는 여동생하고 많

이 하죠 ...속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친구든 동생이든. 진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주 속에 있는 얘기는 친구하고 동생한테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례 2)

(2) 경제적 능력: 자립이 어려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혼 후 생계를 꾸려나갈 책임을 지게 된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은 직업을 얻어 자립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한다.

내가 이제 가진 기능직이 없으니까, 뭐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인제 뭐, 나이가 돼있으니까 사무직 취직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것도 취직도 안 되고, 결국은 판매직이나, 식당이나, 나이든 사람이 할 게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 ...(중략)...그리고 결혼 전에 경력은 안 쳐줘요 그리고 또 인제, 집에서 들어가면 써어 있었으니까. 한 칠년 넘게. (사례 6)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너무 없어. 특히 가정주부들이 정말 할 수 있고, 딱 30대가 넘으면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정말 자기가 전문직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없더라고. (사례 4)

자립능력이 없는 경우에 정부나 교회와 같은 사회단체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대상인 경우에도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가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예 교회 분들이 좀 많이 들봐줘요 많이 들여 봐주고, 아들 때 들러 봐주고. (사례 1)

저는 혼자 속 썩고, 누구한테도, 친정식구나 교회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내가 그러고 사는지. 그래갖구 지금은 이젠, 이젠 많이 이야기를 해요.(사례1)

(교회)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지팡이 역할을 했으니까요. (사례 3)

지난겨울에 저기 도움 많이 받았죠...(중략)...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만약에 인제 봉사할라고 하는데, 그... 저... 명단 좀 뽑아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뽑아 주면은... 작년에 떡국 있잖아요, 떡국도 두 번 얻어먹었어. (사례 2)

여기(영구임대아파트) 와서 보니까 혜택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래가지고는 의료보험료도 안내는 집도 많고... 또 동사무소 찾아 가서 힘들다고 그러면은 아이들 후원자 연결도 있고, 또... 직장 다니다가 잠깐 쉬는 기간이 있으면 실업기금같은 그런 것도 타먹을 수도 있고...(중략) ...그리고 또... 저... 여성 민우회란 데가 있어요 거긴 보증인만 확실하면 오천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있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된거야. (사례 4)

또한 친정환경이 이혼을 죄악시하고, 성별에 따른 성별분업 의식이 강한 전근대적 사고를 생산하는 곳이었을 경우 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이므로 어떠한 정서

적 지지도 받기 힘든 상황이 된다.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는 여자는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똬 삼 년 해갖고, 맨날 그런 것만 들어갖고 결혼 초부터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이제 뭐 의논할 상대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한테다가 도저히 못살겠다 하면, 좋은 날 있을 테니까 참고 살아라, 참고 살아라... (사례 1)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의논상대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문제를 방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식 얘기 남들한테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논할 상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일일이 내 자식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해 봐야 나만 얼굴에 침 뱉기고, 그 부분에서 힘들 때가 많아요(사례 1)

2. 여성 한부모의 사회관계망: 이혼녀로 살아간다는 것

앞에서 이혼한 나의 모습을 분석한 바와 같이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지원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는 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은 이혼녀라는 꼬리표 즉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갖게 되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적응 유형을 보이게 된다.

1) 이혼녀로서 살아감의 고달픔

(1) 이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편견, 부모에 대한 죄책감등의 이혼에 대한 두려움은 제보자들이 이혼을 결정할 때 망설임의 요인이 되었다. 이는 가장이라는 역할과 모성을 동시에 수행(김경애, 1999)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다.

이혼을 왜 안 하고 참았던 건 가정적인, 경제적인 면 첫 번째로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게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겁이 났어요 돈을 안 벌어본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편견... 나도 이혼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봤는데, 나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나랑 얘기는 같이겠죠 두 번째 얘기를 나랑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엄마 아빠가 받는 정신적 충격, 그거 세 가지죠 경제적인 사정, 뭐... 엄마 아빠. (사례 5)

(2) 이혼 후 느끼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외로움, 소외감

양부모가족인 핵가족으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자 살고 있는 현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상의 기록¹²⁾을 대하면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외로움이 강화된다.

등본을 딱 떼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 달랑 있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낯설고 힘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혼자라는게, 원래 혼자서 살았는데, 서류상으로 혼자니까, 등본을 떼보고 호적을 떼보니까 기록이 ...다... 가능하면, 싫으면 따로 살더라도 이혼은 안하면 좋겠어. (사례 7)

(3) 이혼한 사람에 대한 인식(낙인)때문에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혼 후 이혼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견을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낙인으로 인하여 삶의 불안정성과 회의가 높아진다.

제가 되게 친한 언니인데... 그... 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나는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이혼을 했으니깐 우리 아이가 다른 이상한 짓만 해도, 재량 노니까 재가 이상해진 거 같다, 재가 뭘 싸이나 보다... 왜냐면 내가 아니더라도 그 집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이혼하자 말을 해도, 그래 너 재량 같이 다니니까 이혼하자는구나, 그 신랑이 저한테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대판 싸웠거든요... 난 자존심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내가 이혼했다는 것만으로, 내 사고 방식이 어떤지, 내 성격이 어떤지 그냥 매도하는 거잖아요 이혼한 여자, 그냥 타이들이 이혼한 여자니까... 막살고, 니 성격이 그러니까 이혼했지. 그런 거 너무 속상해. 자존심 상하고, 그니까 전 차라리 안봐버려 (사례 5)

아빠가 없다는 그런 편견 있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 그런 편견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선은 또 제가 제일 염원하는게 호주제 폐지예요 저는 자연히 그걸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게, (제 혼하고 나서 얘기가) 아빠랑 성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로 빚어지는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애, 사회적으로 범죄가 더 많을 것 같애, 나는...(사례 5)

그리고 나는 힘들게 열심히 살아도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는 거. 집주인이랑 싸웠는데... (중략) ...내가 애하고 남자 없이 사니까 욕하느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당신도 죽어서 마누라 혼자 살 수도 있는 거다. 어디다 대고 욕하느냐... 그런 면에서... 고된 것도 힘들고 몰랐던 건데, 애랑 그렇게 사니까 느끼는 게 많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나는 진짜 그런 거 없이 열심히 사는데도... (사례 7)

네. 왜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모두들 그걸 인정하는데, 단지 그거(이혼했다는 사실) 알고, 사람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난 안해요(사례 7)

우리나라 인식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사별했다 그래요 이혼했다는 말은 못하고 이혼했다 그러면

12) 이러한 문제는 새로 등장한 다양한 가족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문제로 호주제 폐지로 일인일적제를 실시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남들이 보는 눈이 곱지가 않더라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그런 면이 그래요. 아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모르는 데 가서는 사별했다고 그래요 (사례 1)

(4)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

경제적으로 자립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혼하여 여성 한부모가족을 이루게 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는 부담감이 매우 크다.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많죠... 그니까 어쩔 때는 그게 너무 짐이 무거워서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런 일 안하고 그냥 쉬고 싶어요... 어쩔 땐... 그니까 어쩔 땐, 남의 집 방문하면... 주부들 있잖아...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나도 그냥... 저런 아파트 살면서... 애기 학교... 나는 지금 너무 애기한테 미안한 게... 저는 애기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공부방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고, 내 여가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니까 그, 가장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든거야...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냥, 힘든 거 같아요 내가 가장이다. 내가... 그니까 어쩔 땐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내가 죽으면, 애 어떡하나... (사례 5)

2)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환경의 약화·관계의 단절

(1) 가족에 대한 죄책감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이전의 사회적 관계망을 축소하게 된다. 이는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환경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단순히 이혼을 하는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 나부터, 당사자들은 물론, 자기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족들이 모두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사자니까 상관이 없지. 일단 옆지려진 물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원인제공을 안했는데,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반반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참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나두... 안 참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보면, 가족들 생각하면, 일단 가족이...(사례 7)

친정식구는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이혼 한거니까 밍고, 돈도 나 때문에 땅을 이십억을 팔았으니까 그것도 싫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 안하려고 해도, 그러구 나서 혼자 사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언니들은, 시집 간 형제들은 참는데, 시집안간 형제는 이해를 못하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시집간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집 안 간 동생은 이해를 못해요(사례 7)

사실 부모 입장에서라도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면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데 잘못된 자식이 있으면 안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편하고, 당사자인 나도, 형제들 만나는데, 모임 같은데 가면 안 편해. 안 편하고 괜히 또 내 형제들은 안쓰러우니까 잘해주는 시늉을 하면, 같이 그게 부담스럽고, 울케들 있으면 또 안 편하고 (사례 6)

(2) 가족에 부담스러운 존재로서의 자신

이혼 후 친정가족과 관계에서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인식은 가족관계망의 약화를 초래한다.

친정 막내하고만 안하고 살죠... (중략) ...저는 제가 혼자 살면서 없이 살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나 부다 그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요... (중략) ...인제 될 수 있으면 남자동생네 안 갈려고 그러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 가면 아무래도 지가 밥 해줘야 하고, 힘들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죠 (사례 3)

(3) 과거 인간관계로부터의 의도적 단절

이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을 과거부터 알았던 사람들을 보기가 싫다고 한다. 친구나 친척 등과의 유대가 점점 약화되어 사회관계망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오하려고요... 오하려고요... 친척이 더 자존심 상해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친척이에요. 옛날부터 나를 알고 있던 친구들. 예, 더... 제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보험을 시작하면, 솔직히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 친척을 가잖아요. 친척 안가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니까 그 정도예요. 친구들? 안가요. 저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만 가요 (사례 5)

(단호하게) 자존심 때문에. 혼자 사니까. 옛날 같으면, 엄마한테라도 달라고 할 것 같애. 지금은 안해요.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뭐 이혼을 했기 때문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다른 것 보다는 더 자존심이 그럴 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사례 7)

그러나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여성 한부모가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환경의 약화 및 관계의 단절에 대한 극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성 한부모 스스로 이러한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안정적 삶을 위한 새로운 사회관계망의 구축으로 안정적 삶의 자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의)게시판을 통해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또 글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 할 그거거든요? 안 그러면 못 살아가죠. 어려운 거 다, 다 진짜 살다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데... 극복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 5)

IV. 결론 및 제언: 이혼 후 사회관계망 지원의 변화와 대책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여성 한부모가족을 이룬 경우 그들이 가지는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자원은 그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친족관계를 더욱 가깝게 유지하고 있으므로(김주희, 강성희, 2001)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친정가족 자원의 약화는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이혼녀로서 살아감의 고달픔과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환경의 약화 및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생활유형은 세 종류로 제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유형 사회관계망 형성과정과 그들의 삶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친정의 지지와 보조가 가능한 경우로 이혼 후의 지위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적응하는 경우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보장제도가 친구에 비해서 친족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지의 대상으로 존재(정진성, 2001)하므로 친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 수준이며, 이혼과정에서 이들이 피해자라는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안정감과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자조공동체에 대한 요구를 일으키고, 당당한 이혼녀로서 자신감 있는 삶을 영위한다. 이들은 이혼으로 인하여 소위 정상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나, 친정가족과의 유대가 깨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가족환경이 인프라로 작용하며 더 큰 광역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조공동체에 대한 요구 및 이를 통한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혼 후 삶이 안정적으로 재구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자조집단간 네트워킹을 통한 활동의 활성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잘못된 자식이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이다. 친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 또는 중간정도 이어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한편 이혼과정을 친정 부모나 형제로부터 지지받지 못하여 이혼이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식되며, 경제적 능력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만 하지 못하여 긴장상태가 지속된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도 부족하며, 가까운 가족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즉 친정가족 및 본인의 현재 가족 모두 가족환경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므로, 이혼한 여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취약하고 협소한 가족단위를 이룬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스스로도 자신을 사회로부터 견제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도 사회관계망의 확보 없이 고립되어 있다. 이들은 이혼 후 삶이 재구성되기 커녕 고립되고 불안

정한 삶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계적인 가족생활 상담과 교육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모든 측면에서 자원이 취약한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머무르는 경우이다. 친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에 머무르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립이 어렵다. 이들은 정보를 잘 입수하면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정보가 부족하여 생계의 곤란함과 정서적 지지망의 결핍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과거 사회적 지원을 받았던 원가족(친정) 생활의 경험으로 사회단체나 정부와 같은 거시환경의 존재를 지각하여 상호작용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원가족 환경 자체가 취약하여 처음부터 빈곤층이었던 경우가 많고, 이러한 원가족 생활경험은 광역 환경과의 교류의 통로와 연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통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이혼한 자아상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은 이혼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인들 스스로도 이혼에 대한 두려움, 혼자 살아감에 대한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이혼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편견, 경제적 부담 등의 이혼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고달픔과 사회관계망의 약화 또는 단절은 이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성 한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자원에 따라서 개별화되어 가고 있는 개인의 사회관계망 지원의 차이를 극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김경신(2003)의 제언과 같이 국가 주도적으로 통합적 중심체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도 정부정책 방안으로 여성 한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시(장혜경 외 3인, 2001)되고는 있으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보다 더 다양한 지원정책의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기존자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여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기에 일부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만을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개인의 삶의 내면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여 사회관계망 지원이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혼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에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이성문제 등에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파악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여 사회관계망 지원의 형태가 다양함을 밝힌 것은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가족(친정)의 지원이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을 밝힘으로써 이혼사유

중에서 배우자간의 심리적·정서적 불일치로 인한 이혼과 친족과의 불화에 기인하는 이혼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보고(한경혜·강유진·한민아, 2003)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이혼자에 대한 편견이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조심스럽게 진단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사별한 경우를 포함하고, 남성 한부모가족도 포함한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질적 접근을 한 자료만으로는 전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의 전국분포를 고려한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기초 자료가 구축되어야, 이들을 위한 종합적 정책수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 접수일 : 2003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2월 06일

【참 고 문 헌】

- 강기정·이무영·김영희(2002).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체계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 권귀숙(1998).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 분석. *가족과 문화*, 10(1), 135-175.
- 김두현(198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오남·김경신(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07-124.
- 김경신(2003).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정보전달체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73-91.
- 김경애(1999).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15(2), 87-115.
- 김미숙·박혜경·박상헌·홍석균·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승권·이태진·김유경·송수진(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정옥(1993). 이혼의 사회적 배경과 이혼원인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주희·강성희(2001). 한국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과 역할. *생활문화연구*, 15(1), 101-120.
- 옥선화·성미애·이재림·이경희(2002).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55-78.
- 옥선화·성미애·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 원효종(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영·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 이재림·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4.
- 장현섭(1995). 이혼경향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을 위하여. *한국가족학회* 편. *한국가족문제-진단과 전망*(24-93).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2001).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정책자료.
-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은정(2000).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원과 노인의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 *사회와 문화*, 11, 185-203.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 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79-104). 서울: 하우.
- 한경혜·강유진·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Spradley, J.(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Jayakody, R. Chatters, L. M. & Taylor, R. J.(1993). Family support to single and married African-American mothers: The provision of financial, emotional, and child care assis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261-276.